

# PUBLICART

##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 후보 선정

March, 2016

---

####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 후보 선정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은 지난달 3일,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6>전의 참여 작가이자 후보자로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 총 3인과 1팀을 선정했음을 발표했다.

선정 작가는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단의 추천과 국내외의 미술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스튜디오 방문 인터뷰 및 작품 프레젠테이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심사위원단은 추천작가들의 작품 주제와 표현의 독창성, 국내외 대중과의 소통 가능

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 작가들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 작가들은 전시 기간 전까지 미술관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작품 제작을 위해 SBS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각 4,000만 원의 창작후원금을 지원받는다. 이후 전시 기간 중 진행되는 2차 심사를 통해 발표될 최종 수상 작가는 '2016 올해의 작가'가 되어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SBS에서는 수상 작가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할 예정이다.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대안을 제시할 작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제정, 2012년부터 시작된 수상제도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최했던 <올해의 작가>전을 모체로 한다. 수상자로는 문경원·전준호(2012), 공성훈(2013), 노순택(2014), 오인환(2015)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된 '해외활동기금' 심사에서는 2012년 후원작가 임민욱, 문경원·전준호, 이수경과 2013년 후원작가 함양아, 조해준의 해외 프로젝트 후원이 확정됐다. 한편 <올해의 작가상 2016>은 올해 8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 2전시실에서 개최되며 신작으로 꾸러질 예정이다.